

제32회 광주전남문인화협회전
16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148명 참여...문인화 화맥 계승
선비정신·자연 등 조화롭게 담아



김봉 박행보 작 '고요한 들'



고헌 조창현 작 '靜(정)'



옥포 이용선 작 '자연의 소리'



명당 한상운 작 '부활'

선과 여백의 화풍이 전하는 '비움의 미학'

추사, 소치, 의재.
광주·전남은 문인화(文人畵)의 고장이다. 추사로 부터 소치, 의재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살아 있다. 문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문인화'는 선비정신, 자연 등을 조화롭게 화폭에 담아낸 그림이다. 그림 너머에는 동양적 사유와 정신 등이 투영돼 있다. 시와 글씨, 그림, 정신을 아우르는 게 문인화의 핵심이다.
지난 1992년 창립한 광주·전남문인화협회는 문인화 발전과 정통성을 견지하기 위해 창립했다. 초대 이사장은 김봉 박행보였다. 첫 전시를 남도예술관에서 열었으며 참여 작가가 98명이었다. 당시 참

여 작가 자격은 저명한 공모전 3회 이상 경력을 갖춰야 했다.
광주·전남문인화협회(회장 정재경)가 제32회 문인화협회전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 주제는 '덜고 줄이고'.
주제는 오늘의 시대에 전하는 '고연'처럼 들린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의 자본주의 사회는 내면의 공허, 정신적 빈곤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덜고 줄이고'의 삶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예술로나마 그 정신을 사유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다.
전시에는 148명 회원 작품 148점이 출품됐다. 각각의 작품은 다채로운 문인화의 세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비움의 미학과 자연과의 교감 등을 환기한다.
최근 취임한 신임 정재경 이사장은 "문인화는 단순한 선과 여백으로 내면은 물론 자연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148명 회원들이 참여한 전시를 매개로 광주·전남문인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봉 박행보 화백의 '고요한 들'은 봄이 깃든 마당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노란 벼아들이 한가

롭게 노닐고 꽃잎들이 분분이 날리는 장면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적요한 들에 펼쳐진 풍경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저만치 밀어낸다.
이용선 전 이사장의 '자연의 소리'는 가을의 한 장면을 활달한 필치로 구현했다. 이 작가는 '가을바람에 물가의 계들도 활기차구나'라는 문장으로 가을의 서정과 서경을 표현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나면 그림 속 풍경이 우리를 곁으로 다가갈 날이 멀지 않은 느낌이다.
'청풍만죽림'(淸風滿竹林)이라는 정재경 이사장의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대나무숲에 가득 들어찬 푸른바람 소리가 '짜아'하고 들려올 듯

하다. 선과 먹의 농담이 전하는 여백 사이로 담백하면서도 호방한 기운이 배어나온다.
이밖에 우수 김영삼의 '겨울 그 끝자락', 명당 한상운의 '부활', 하당 조재환의 '玉龍里의 가을', 고헌 조창현의 '靜(靜)' 등 회원들의 각각색의 작품에서도 문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초대와 2대 이사장을 역임한 박행보 화백은 격려사에서 "가물거리는/ 아득한 바다를 향한/ 進水式(진수식)/ 순풍에 돛을 올리니/ 기나긴 33년의 여정/ 큰 파고나 암초도 없어/ 청풍명월 벗삼아 / 선유(仙遊)를 한다"고 표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악의 울림으로 마주하는 삶과 죽음

양상블 칸타빌레 정기연주회...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선율이 무대에 깃든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클래식 전문 앙상블 칸타빌레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남구 구동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025 정기연주회 '죽음과 소녀'를 선보인다. 수준 높은 실내악 프로그램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대는 총 세 곡으로 구성된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체코 낭만주의 작곡가 요제프 수크의 '세레나데'다. 스승 드보르자크의 영향 아래 작곡된 이 곡은 밝고 서정적인 선율과 섬세한 현악의 움직임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여름밤의 청량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어지는 곡은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로망스'. 비올라와 현악 합주를 위한 이 곡은 사랑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고도 진한 감정을 담아낸다. 협연은 비올리스트 엄광용이 맡는다. 독일 만하임 국립오페라를 수석 입학·졸업한 그는 제60회 프

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서 코르넛 2위에 올랐으며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브루흐 특유의 낭만적 선율을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를 구스타프 말러가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버전이다. 원작은 슈베르트가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삼아 탄생시킨 사중주로, 죽음을 앞둔 소녀와 죽음이 나누는 대화를 음악으로 형상화했다. 말러의 편곡은 오리지널 사중주의 긴장과 예수를 유지하면서도 오케스트라 특유의 풍성한 음향과 색채감을 더한다.
지휘는 프랑스 파리 라 스킴라 칸토롬에서 수학한 문진탁이 칸타빌레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밀도 높은 해석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은민 앙상블 칸타빌레 대표는 "이번 연주회는 수크의 '세레나데' 전악장과 말러 편곡의 '죽음과 소녀' 등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레퍼토리로 구성했다"며 "음악적 깊이에 심혈을 기울인 만



문진탁 지휘자(왼쪽)와 엄광용 비올리스트. <앙상블 칸타빌레 제공>

람 클래식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풍성한 선율을 즐길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앙상블 칸타빌레는 2022년 창단 이후 광주와 담양을 비롯해 이탈리아 피렌체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 공연과 찾아가는 무대를 펼치고 있다. 7월에는 담양에서 '담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으로, 11월에는 청년예술인과의 협업 무대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허백련미술상' 장진원·'오지호미술상' 한희원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 선정
특별상에 임노식·박성완 작가



한희원 작 '생의 시간'



장진원 작 'Inbetween 4'

장진원, 한희원 작가가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에 각각 선정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8일 '2025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문화예술상 미술상) 수상자 4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상 미술상 한국화 부문인 '허백련미술상' 본상에 장진원(광주), 특별상에 임노식(서울) 작가가 선정됐으며 서양화 부문 '오지호미술상' 본상에 한희원(광주), 특별상에 박성완(광주)작가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본상 수상자들은 차기년도 문화예술활동비 1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본상 수상자에게는 차기년도 전시 기회가 제공된다.
허백련미술상 본상 수상자 장진원 작가는 한국화의 현대적 해석을 토대로 수묵 기반의 추상 회화를 전개해왔다. 2000년대 뉴욕으로 이주 이후, 전통회화의 해체와 재구성을 실험해왔으며 명상, 종교 등 동양회화의 사의에 귀결하는 주제를 다루어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지호미술상 본상 수상자 한희원 작가는 80년대 민중미술을 시작으로, 죽음·삶·시간 등 존재론적 화두를 서정성과 시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펼쳤다. 양림골목비엔날레 추진 등 지역의 역사성과 인문학적 가치를 보존하는데도 주력했으며 예술적 성취와 함께 사회적 실천을 구현해왔다.
지난 2023년 이후 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해 온 '문화예술상 미술상'은 올해는 추천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심사위원회도 2회로 추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운영위는 수상후보자 추천위원(부분별 5명), 심사위원(부분별 10명)을 선정했으며, 수상후보자는 추천위원과 시립미술관 추천 그리고 공모를 통해 총 29명을 모집했다.
한편 윤인 관장은 "문화예술상 미술상은 허백련, 오지호 화백의 뜻을 기리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에 수상을 한 4인 작가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시 '꽃잎-240, 233, 7'을 광주여성전시관에서 진행 중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 예술로 기억합니다 '꽃잎 240, 233, 7'

광주여성가족재단, 9월 11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Herstory

잊혀져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 11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Herstory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기획 전시 '꽃잎-240, 233, 7'을 선보인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쟁 피해자의 역사적 고통과 삶의 의미를 예술로 기억하기 위한 자리다.
제8회 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번 전시는 성유진 작가의 기획 아래 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 제목의 숫자 '240, 233, 7'은 지난 2월 기준으로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 7명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줄어드는 숫자는 사라지는 기억의 위기를 알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시는 '기억', '공감', '치유' 등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역사적 자료와 회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고통의 흔적을 예술로 승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막일인 지난 4일에는 조근수 디자이너가 제작

한 의상을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착용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광주 영락공원에서 수거한 버려진 꽃을 관객과 나누며, 잊혀진 존재에 대한 기억과 위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무료 전시이며 관람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영상은 유튜브 및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는 "이번 전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서구문화원 '국가유산 아카데미' 29일 두번째 강의

웃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그 사회의 문화와 질서를 보여준다. 복식문화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강의가 마련됐다.
광주서구문화원이 지난 7일 '2025 국가유산 아카데미'의 첫 강의를 열었다. 문화원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한복의 일상화와 복식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꾀한다.
개강 특강에는 김은정 전남대 의류학과 명예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은 '역사 속 한국복식의 변천사'를 주제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풀어냈다. 김 교수는 "복식이 단순한 의복을 넘어 질서와 품격을 담은 문화의 매개체"라며 "전통 한

복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29일 안명숙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 교수가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광주서구문화원은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발산아트홀에서 총 5회의 강의와 1회의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장은 "지역민이 한복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